Symphony No. 1 in E minor

- □□

정보

Aram Khachaturian:

Symphony No. 1 in E minor
작곡가: Aram Khachaturian (1903–1978)
작품명: Symphony No. 1 in E minor
장르: 3악장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934년, 1960년 개정
초연: 1935년 3월 20일, Moscow,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Eugen Szenkar 지휘
소요 시간: 약 43분
IMSLP: https://imslp.org/wiki/Symphony_No.1_(Khachaturian,_Ara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1(Khachaturian)

Aram Khachaturian의 Symphony No. 1 in E minor는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작품으로 쓴 3악장 교향곡이다
. 장중한 도입과 빠른 춤 리듬, 하프 ·피아노 ·대규모 타악이 한데 모이며, 아르메니아적 선율의 굴곡이 러시아 · 서유럽 교향악의 큰 형식 안에서 울린다. 1935년 초연 뒤 Khachaturian은 작품을 다시 다듬었고, 1960년 개정판과 1962년 재출판이 현재의 전승을 이룬다.

개요
이 교향곡은 1934년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을 위해 작곡되었다 . 젊은 작곡가의 대규모 관현악 시험작이면서 , 아르메니아 음악에서 들은 선율 억양과 춤 리듬을 교향곡의 언어로 조직한 초기 선언이기도 하다. Khachaturian은 특정 민요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선법, 장식, 반복되는 리듬과 목관의 유연한 호흡으로 민속적 색채를 만든다.

1935년 3월 20일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와 Eugen Szenkar의 초연은 작품을 공적인 무대에 올렸다. Khachaturian은 이후 세계 각지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하며 관현악을 손질했고, 1960년 개정판이 1962년에 다시 출판되었다 . 현재 연주는 초판과 개정판 가운데 하나를 따르므로, 세부 음향과 연주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초판은 Muzgiz에서 나왔고, 개정판은 1962년 재출판되었다 . Boosey & Hawkes의 현재 자료는 E단조 교향곡으로 표기하면서 G장조 영역이 작품의 밝은 대비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3악장 순서와 대규모 관현악은 초판과 개정판을 잇는 작품의 뼈대이며, 개정판에서는 관현악의 세부가 다듬어졌다 .

소요 시간

전곡은 약 43분이다. 악장별 템포와 반복, 1934년 초판과 1960년 개정판의 선택에 따라 실제 연주 시간은 달라진다.

편성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트라이앵글 , 우드블록, 탬버린, 작은북, 큰북, 심벌즈, 탐탐, 튜블러 벨, 글로켄슈필 , 실로폰
건반 ·현악: 피아노, 하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와 하프는 선율을 대신하기보다 관현악의 표면을 반짝이게 하고, 글로켄슈필 ·실로폰 ·튜블러 벨을 포함한 타악기는 춤 리듬과 의식적인 울림을 더한다. 클라리넷과 다른 목관은 아르메니아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굴곡과 장식을 길게 이어 가며, 금관과 저음 현은 교향곡의 공적 규모를 세운다.

3악장 구조

I. Andante maestoso con passione – Allegro

장중하고 열정적인 도입이 먼저 울린 뒤 빠른 주부로 넘어간다. 도입부의 넓은 호흡은 작품의 공적 규모를 세우고, Allegro 에서는 반복 리듬과 날카로운 대비가 음악을 앞으로 밀어낸다. 클라리넷과 목관의 굴곡, 첼레스타와 높은 현의 이례적인 결합이 빠른 흐름 속에 몽환적인 순간을 만든다.

II. Adagio sostenuto

하프와 플루트의 가벼운 동기로 시작하는 느린 악장이다. 투명한 음향 뒤에 노래하는 선율과 민속 춤의 리듬이 교대로 나타나, 완전히 멈춘 애가가 아니라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는 장면을 만든다. 긴 선율의 장식과 목관의 응답은 아르메니아 노래의 말투를 연상시키지만 , 특정 민요의 직접 인용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III. Allegro risoluto

결연하고 빠른 피날레가 짧은 리듬 세포와 강한 악센트로 시작한다. 격정적인 현악이 빠른 반복을 이끌고, 금관과 여러 타악기가 춤의 발걸음과 축제의 색을 넓힌다. 1악장의 열정과 2악장의 유연한 리듬이 이곳에서 공적인 에너지로 확장되며, 후대 Khachaturian의 발레와 협주곡을 예고하는 관현악 감각도 드러난다.

아르메니아적 선율과 교향악의 형식

Khachaturian의 민속성은 한두 개의 민요를 인용하는 방식보다 선율이 움직이는 방식에서 들린다. 목관의 아라베스크와 즉흥적인 장식,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악센트, 춤을 연상시키는 반복 리듬이 서유럽 교향곡의 긴 호흡 속에 들어간다. 러시아 교향악의 대형 관현악과 아르메니아적 억양은 서로 충돌하기보다 , 같은 주제를 다른 음색과 속도로 확장하는 두 문법이 된다.

세 악장은 서로 다른 표정을 보이지만 리듬과 음형의 말투를 공유한다. 1악장의 도입과 빠른 주부는 공적 긴장과 민첩한 움직임을 대비하고, 2악장은 그 리듬을 느린 노래와 춤의 흔들림으로 바꾼다. 피날레는 다시 속도를 높여 현악 ·금관 ·타악을 한꺼번에 밀어 올린다. 이 순환 덕분에 43분의 대편성 작품이 여러 개의
장면으로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졸업 작품에서 개정판으로

1934년 작품은 이미 피아노 ·하프와 다채로운 타악을 포함한 큰 관현악을 전제로 했다. Khachaturian은 초연 뒤 작품을 직접 지휘하면서 연주 현장에서 들리는 균형을 다시 살폈고, 1960년 개정판에서는 관현악의 세부를 다듬었다. 개정은 세 악장 구조와 핵심 선율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거친 색채를 더 잘 통제된 음향으로 정리한 과정이다.

초기 수용에서 이 교향곡은 젊은 작곡가가 대형 형식과 민속적 색채를 함께 다룰 수 있음을 보여 준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 후대의 회고에는 쇼스타코비치가 1936년 레닌그라드 공연을 앞두고 풍부한 멜로디와 밝은 관현악을 인상 깊게 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 평가는 작품이 지닌 선율과 음색의 직접성을 잘 보여 주지만, 모든 동시대 비평을 대표하는 말은 아니다.

주요 레코딩

Alexander Gauk / USSR State Radio and Television Symphony Orchestra: 초연
세대의 소비에트 관현악 전통 안에서 작품을 들려주는 역사적 녹음으로, 대편성의 공적 울림과 3
악장의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다.
Aram Khachaturian / USSR State Symphony Orchestra: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녹음으로
, 1960년 개정판의 관현악 균형과 선율의 억양을 살피는 기준점이 된다.

주요 자료

Khachaturian Virtual Museum, Symphonies: 제 1교향곡의 역사적 의미, 3악장 구조와 춤 리듬,
작품의 관현악 특징.

Boosey & Hawkes, Symphony No. 1 in E minor: 1934년 졸업 작품, 약 43분의 편성 ·악장
설명과 개정 정보.

Khachaturian International Competition, biography: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과 1935년 Szenkar
초연 연표.

Aram Khachaturian House-Museum, biography: 1934년 작곡,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와의 초연 기록.
Khachaturian House-Museum, works: 작품 연표와 개정 ·출판 자료.
Wikipedia, Symphony No. 1: 초연 날짜, 1960년 개정과 1962년 재출판의 보조 확인.